

도내 수출실적 2개월 연속 '증가세'

무역협회 전북본부, "자동차 부품·합성수지 등 강한 회복세 보이며 향후 수출 전망 밝아"

도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5억71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5월과 6월 각각 1.9%, 3.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북의 1~3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농기계 포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반면 종이제품, 농약 및 의약품 등은 4월에 이어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5월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MTI)가 일부 변경되면서 '농업용 트랙터'가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조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도 살펴보면 올 1월부터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對중국 수출은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7.4%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전월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축소되면서 전북의 5월 수출 대상국 1위 지위는 미국(2.5%)이 차지했다.

특히 쿠웨이트는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의 수출(1,500만 달러)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대상국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인도 수출은 종이제품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5월에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었다.

전북 지역은 5월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 중 1.13%의 비중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6.0% 증가한 3억 8,16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억 2,546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

농약 및 의약품(95.7%), 목재류(106.9%), 전력용기기(1622.4%) 등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5월 전체 수입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전북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상위

1~3위 품목의 수출이 올 들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는 세계 경제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낸다면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도 이 같은 분위기에 발 맞춰 도내 수출 초보기업들이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 바이어 관리(실시간 통번역), 수출절차 컨설팅 등 실제 수출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해소해 주는 밀착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 전주, 준다 페스티벌 진행

룬니슈즈·준다컬렉션슈즈·핸드백 등 인기상품 구성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블랙마틴시봉이 론칭 5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준다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진행한다.

'준다 페스티벌'은 6월(JUNE) 다드린(多)이라는 의미로 블랙마틴시봉이 매년 6월 단 하루 토요일에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룬니슈즈, 준다컬렉션슈즈, 핸드백 등 블랙마틴시봉의 인기상품을 1+1+1 럭키박스(11명

한정)로 구성해 파격적인 가격 11만1,000원에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정육진 파트 리더는 "년에 단 하루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블랙마틴시봉의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다 페스티벌'의 특별 프로모션 내용은 홈페이지 비롯해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이 도농상생과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캠페인을 전북도청에서 실시했다.

농협상호금융에서 개발한 '행복이음패키지'는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해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동행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의 추가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 증대 상품이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과 김원철 농협중앙회 이사는 22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가입 캠페

인을 실시하고 많은 도민들이 상품 가입을 통해 도농상생에 동참하고 어려운 농촌에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농협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전북도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호금융상품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농협은 도시와 농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시중은행, 대출금리 '들썉' ... 가계 이자부담 커진다

코픽스 상승에 금리 일제히 올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들썉이 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에 이어 이르면 연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0.01%포인트 가량 일제히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반등한 영향이 작용했다. 지난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7%로 전달보다 0.01% 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한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신용대출 '행복부채 더프리미엄주거래 우대론'의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3.301~4.501% 수준이었지만, 이달 20일 현재 연 3.318~4.518%로 0.017%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국내 시장금리와 금융제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변동금리 오름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연내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올 하반기 중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이르면 연말께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깨고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가계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농업분야 새내기 공무원, 삼락농정 이해 특강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도시군 농업분야 새내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농업현장에서 배우고 소통하다 라는 주제로 ICT 스마트 팜, 6차 산업 현장탐방, 삼락농정 이해 특강 등 역량강화 교육을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 교육은 임용 5년 미만인 농업분야 새내기 공무원들의 스마트 팜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 4차산업 혁명의 선도사례 탐방을 통해 '작지만 강한 전북농업'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 및 시간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삼락농정, 6차산업, ICT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별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새로 발굴한 내용에 대한 실현방안을 서로 공유하며 최적의 실현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정보화(ICT) 농업은 생산 등 모든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어 무한한 자급성과 삼락농정의 이해를 갖고 능동행정을 펼쳐며 농민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개공, 혹서기 건강생수 지원사업 추진

전북개발공사가 때 이른 폭염속에서 공사 임대주택 등에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혹서기 건강생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건강생수 지원사업은 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 임대주택 택배실 입구 등에 아이스박스와 함께 생수 7,000병을 비치해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일 무더위에 지친 택배기사, 집배원, 경비원, 미화원 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마련됐

다. 지난해에는 8월 한 달간 약 3,000명의 생수를 지원했었으나, 올 해는 이른 불볕더위로 인해 6월부터 조기 실시해 8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현장업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동해소와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 생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